

영상 저작권 단속 심해지는데... 4차 산업시대 KBO의 선택은?

11월부터 한국야구위원회(이하KBO)가 영상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자와 합의없이 SNS에 게재된 중계방송 영상이 KBO 공식 계정에 의해 삭제될 권고 받고 있다. 권고기간 내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KBO의 입장이다.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고 뉴미디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콘텐츠 재생산은 소비층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 일각에선 이번 KBO의 판단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BO의 저작권 단속 강화는 중계권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다. KBO리그 중계권의 경우 LG, SK, KT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 2곳이 연합한 통신-포털 컨소시엄이 갖고 있다. 5년간 총 1100억원이라는 대규모 계약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을 따냈다. 영상 저작권 단속 강화는 예정된 수순이다.

선수의 초상권 문제도 얽혀 있다. 이번 포스트 시즌 중 키움 송성문의 막말 파문은 중계권이 없는 촬영자가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프로야구 경기시간 중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KBO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팬들의 반발이 거세다. 야구 경기 내용 이외에도 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2차 콘텐츠는 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창구이다.

KBO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활성화의 충돌에서 규제 강화를 선택했다. 프로야구의 역사만큼 축적된 콘텐츠를 규제하는 동안 팬들의 반발과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백소희 명예기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bs.h0086@daum.net

축구 대표번호 '정통 10번'이 사라지고 있다?

에이스 10번, 실바처럼 변해야 산다

(맨시티 베르나르두 실바)



현대축구에 가장 어울리는 10번으로 평가받는 베르나르두 실바. 사진출처 | 베르나르두 실바 인스타그램

정통 등번호 10번, 2선 공격형 MF 역 실바는 측면까지 자유자재 공간활용 중앙 압박은 물론 수비가담까지 출중

축구에서 10번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화려한 플레이와 천재적인 감각으로 팀의 공격을 이끄는 에이스들의 등번호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10번은 2선 중앙에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부르는 번호였다. 이 위치의 선수들은 볼 컨트롤과 패스 능력이 뛰어났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동료 공격수들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창조성과 화려한 플레이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유발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 10번'의 존재감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때 축구 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갈수록 거세지는 중앙에서의 압박 강도와 이들의 수비 부담 때문이다. 정통 10번들의 주 활동 지역인 상대 3선과 4선 사이의 공간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어 자유로운 플레이가 힘들어졌고, 공격에만 집중하던 이들이 수비 임무까지 맡게 되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수트 외질이다. 외질은 천재적인 패스 능력을 갖췄지만 탈압박 능력과 수비 시 적극성이 떨어졌다.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수가담이 필

요한 에메리 감독의 전술에서 희생양이 됐고, 결국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아스날에서 전력 외 선수로 구분됐다.

물론 이러한 창조성을 갖춘 선수들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10번의 개념 역시 현대축구의 흐름에 맞춰 변화했고, 팀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들의 플레이도 기존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새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변화한 개념은 이들의 위치다. 이들은 더 이상 중앙에만 머물러 않는다. 자유롭게 측면으로 돌아다니며 압박에서 빠져나오고, 보다 넓은 공간에서 자신들의 패스 능력을 발휘한다. 상대적으로 압박이 덜한 측면으로 위치를 옮긴 것이다.

두 번째는 수비력이다. 이전까지 수비 상황에서 별다른 압박이나 수비를 펼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공격 작업에만 몰두했던 10번들이 이제 전방에서 1차 수비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르나르두 실바다. 기술적인 능력은 물론, 공간을 이해하는 축구 지능과 움직임이 뛰어나 측면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여기에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력도 수준급이어서 '현대축구에 가장 어울리는 10번'이라 평가받는다. 이처럼 현대축구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역사였던 정통 10번은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형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비 조직이 발전해갈수록 팀의 공격을 이끄는 에이스들도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뢰명 명예기자(연세대 신방과)q65w82@naver.com

인종차별·감독 밀치기...페어플레이 실종된 유럽축구

우크라이나·이탈리아 경기중 인종차별 프랑크푸르트 다비드는 상대감독 밀치

유럽 축구계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종차별 행위와 더불어 황당한 퇴장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11일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디나모 키예프의 경기에서 인종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수가 퇴장

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디나모의 팬들이 샤흐타르의 브라질 미드필더인 타이손과 덴치뉴를 향해 인종차별행위를 했다. 타이손은 화를 참지 못했다. 디나모 측 팬들을 향해 손가락 욕설과 함께 관중석으로 공을 치는 행동을 했다. 심판은 곧바로 타이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타이손은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3일 브레시아 갈초와 헬라스 베로

나의 경기에서 베로나의 팬들이 마리오 발로텔리를 향해 인종차별행위를 한 것이다. 참다못한 발로텔리는 경기 도중에 베로나 팬들을 향해 공을 찼다. 경기가 끝난 직후 발로텔리의 소속 팀인 브레시아는 베로나 팬들의 인종차별 행위를 규탄했다.

독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황당한 퇴장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프라이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에서 선수가 감독을 밀어 넘어뜨려 퇴장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후반 막판 프라이부르크가 1-0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주장인 다비드 아브라함이가 프라이부르크의 크리스티

안 슈트라이히 감독을 어깨로 밀쳤다. 상대 팀 감독을 밀친 아브라함은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 장면에 대해 많은 외신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라며 아브라함을 비판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올해 잔여 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인종차별행위와 더불어 비인사적인 행동으로 얼룩진 유럽 축구다. VAR 도입과 FFP 룰 등 제도적인 면에서 계속 발전해온 유럽 축구지만 정말 발전해야 하는 건 팬들과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아닐까. 이정민 명예기자(고려대 국제스포츠 전공) nwh11023@naver.com

RIVADI Winterize boots

리바디 천연소가죽 패션방한부츠



모델명

리바디-101 (블랙)
리바디-102 (브라운)
소재 : 천연소가죽

두툼하고 따뜻한 방한충전재, 완벽한 방한기능, 강력한 미끄럼방지, 세련된 유럽형 디자인

◆클래식한 신발과 사이즈피퍼 관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다. ◆자연으로부터의 충격을 막아준다. ◆천연소가죽의 부드러움과 내구성을 장기간 신을 수 있다.

정통 유럽 브랜드 리바디가 천연소가죽 방한부츠를 출시하였다. 일반 가죽보다 내구성과 유연성이 좋은 천연소가죽은 신으면 신을 수록 발에 맞춘듯 부드럽고 편하게 길어져 진다. 또한 천연소가죽 특유의 질감과 광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클래식한 감성이 살아나며 고급스러운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끈과 지퍼를 동시에 채용하여 끈 묶고 풀

딱하게 얼어붙은 바닥의 냉기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리바디 방한부츠의 가장 큰 장점이다. 겨울철 지면은 눈과 얼음으로 인해 딱딱해지고 거칠어진다. 그래서 신발 바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데 리바디 방한부츠는 내구성이 강하고 마찰력이 강한 리버 아웃솔을 적용하여 지면에 착감기는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최고급 천연소가죽 외피는 어떠한 발 모양도 부드럽게 감싸주어 매우 우수한 착화감을 만들어 준다. 리바디 방한부츠는 겨울철 험해지는 보행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방한기능과 미끄럼 방지기능을 강화한 겨울용 방한부츠로 한국의 겨울날씨에 최적화된 완벽한 패션 컴퍼트 방한부츠이다.

기준가 : 158,000원
출시기념 / 파격가 : 49,800원(무료배송)
※ 신용카드 2~5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사이즈 (남)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mm
(여) 230 / 235 / 240 / 245 / 250mm

모델명

리바디-103 (블랙)
리바디-104 (브라운)
소재 : 천연소가죽

(남성용 최고급형)



모델명

리바디-301

색상 : 블랙
소재 : 최고급 천연소가죽

기준가 : 178,000원
할인가 : ₩69,800

제품구입문의 : 1566-1788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주)진스텍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

기업체, 단체화 주문접수중